

국방위, '비상계엄' 질타...與 “참담” 野 “내란죄”

與 “반세기만에 있을수없는사태”...野 “김용현해의도피가능성” 與유용원, '계엄준비' 의혹제기 野김민석에 “제 판단 틀렸다” 사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의원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해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리사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

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군인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의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난 총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앞으로 ‘당신’이라고 호칭하겠다”며 “대한민국 조국에, 국민에 충감을 겨눴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고, 단두대에서 처단돼야 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 발표 및 포고령 작성 경위,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박 총장을 향해 “허수아비를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 “尹·김용현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일반 특검 추진하면 거부권에 막혀...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 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9일 전체회의 통과,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진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

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계엄 포고령 작성...국방차관 “모른다, 국방부 아냐”

김용현이 계엄사령관에 초안 전달 박안수 “법무 검토 필요하다 건의”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포고령 초안을 박 총장에게 건넸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포고령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3일)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봤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 묻는 질문에 “박 총장에게 건넸다. 박 총장은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 재가

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

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설명했다.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취 / 금 / 품 / 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카트리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임대 • A/S
- 전선모뎀 • 레이저(토너/드럼)
- 각종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대명OA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전라남도 공고 제2024-1210호

순천가곡지구 공공지원간담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전라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40-1번지 일원 공공지원간담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라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순천가곡지구 공공지원간담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나.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40-1번지 일원
다. 제안자: (주)백상씨엔씨
라. 계획규모: 49,263.0㎡, 공동주택 931세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4. 12. 6. ~ 2025. 1. 10. (공고일 익일부 20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순천시 건축과, 순천시 상선동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라. 공개방법: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순천시 홈페이지 (https://search.su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게재
마. 관계도서: 개제 생략 (공람 장소에 갖추어 됨)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2024년 12월 18일(수요일) 1400
나. 개최장소: 순천농협 서면지점 2층 회의실(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로 6)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일로부터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 [별첨2]에 기재하여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2-286-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배 독 달 사 청 고 및

062 650 2022